

부창동 성당 100년을 정리하면서

부창동성당 마당에는 수령이 200년이 넘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그루가 있습니다. 저 아름다리 나무도 언젠가는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 저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자라서 어머니의 넉넉한 품처럼 그늘을 내어주면서 우리 부창동의 희로애락을 모두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1921년 6월 말경 황해중 헨리코 신부님이 부임하시면서 이곳 창말(부창동의 옛 지명)에 자리를 잡으시고, 논산본당을 루르드의 성모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논산 부창동성당은 이렇게 이 지역에 마치 작은 씨앗 하나로 땅에 떨어져 100년 동안 시대의 질곡한 여정을 함께하며 마침내 커다란 느티나무처럼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녀를 낳아 기르신 역척스런 어머니처럼, 여러 본당을 분리해내며 복음화에 앞장을 섰고, 지혜로운 어머니처럼 지역사회의 교육 사업에도 큰 역할을 하였으며,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어려웠던 시절에는 지역 사회의 구호사업과 복지 사업운영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어머니 같은 우리 부창동성당이 대전교구 최초로 성모 어머니님의 군대인 레지오마리아의 도입과 시작은 이처럼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00년 역사를 정리하면서 성모님의 보호 아래 수많은 역대 신부님들의 눈물과 땀으로, 그리고 교우들의 믿음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그 많은 일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수많은 업적들을 이 한권의 책으로 담아낸다는 것이 되려 송구스럽기조차합니다. 초창기 신부님들의 고뇌와 애환 가득한 서한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배부른 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초창기에 이억만리 이국땅에서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온몸을 투신하신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창동성당의 옛 주소는 논산시 부창동 1번지입니다. 지친 나그네들이 아름다리 느티나무에 기대어 쉬며 하늘을 보듯, 우리 부창동성당도 커다란 느티나무처럼 그 넉넉한 품을

지친 영혼들에게 하늘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부창동성당은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가
면서 루르드의 성모님 보호아래 신앙의 1번지
로 영원토록 이곳에 자리할 것입니다.

—
곽명호 루카 신부
현) 주임 겸 논산지구장



편찬사

윤석권 바오로

1921년 6월

논산에서 처음으로 본당이 된 우리 성당은 일제의 강점기와 해방, 6·25 동족상잔의 수많은 고통의 시기를 함께해왔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잘 간직하며, 강경본당, 연무본당, 논산 대교동본당, 논산 내동본당의 분리, 그리고 많은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배출 해왔습니다. 그렇게 모 본당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 주민들의 어려웠던 삶의 한 가운데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무료급식과 병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치료와 구급의 역할을 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한 성당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건중·고등학교와 썬밸여중과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유치원을 세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양로원을 세워 어렵고 힘들게 사시며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게 하여 이웃사랑을 실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서 세월은 쉽 없이 흘러 이제 100주년이라는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으로 볼 때 그 많은 날들 중 소중한 날들이 많았지만 1987년 지역민들과 교우들이 가장 사랑했던 지역의 보물 구성당과 성모동굴을 잊어야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성당과 주변공간들을 함께 기억하고, 훗날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며, 아름다운 200주년을 기대합니다.

2009년 12월

우리는 그동안 부창동성당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미 12년 전부터 기도와 정성어린 봉헌을 함께하며 성전 보수, 사제관 수녀원 리모델링, 아가페홀과 마리아홀 수선, 성당 주변의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해왔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100주년을 맞이 위해 많은 축제와 행사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기획했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할 수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적으로는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운

동과 자기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고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할 자기 성구 갖기,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과 복음전파를 통하여 맞이하는 100주년을 기쁘고 보람되게 지내려 노력해왔습니다.

9년 전 부임하시어 우리 부창동성당 100주년을 걱정하시며 100년사 편찬위원회를 발족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이원순 마티아 신부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100주년을 맞는 성당의 교우들에게 성당의 주인의식을 심어주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일깨워주시고, 성당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광명호 루카 주임신부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

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지 발전을 위해 함께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내포교회사연구소의 전임 김정환 신부님과 김성태 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당 10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님들과 100주년 사업에 봉헌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사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지나온 100년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을 우리함께 고대하고 꿈꾸며 신앙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윤석권 바오로
현) 사목회장



축사

유홍식 라자로 주교

논산 부창동본당 설립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창동본당 형제자매님들,

본당 설립 100주년을 허락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창동본당의 수호자이시며, 대전 교구의 수호자이신 루르드의 성모님께 특별한 사랑을 드립니다. 지난 100년 동안 신앙유산을 성실하게 간직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부창동본당 공동체의 모든 분에게 존경과 사랑과 축복을 드립니다.

부창동본당은 저에게 특별한 성당입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논산 대건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중학교 입학식 미사를 위하여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성전인 성당에 발을 디딘 첫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제가 매주 한 시간씩 있었던 종교 시간에 성경과 가톨릭교회를 알게 되는 매우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대건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가톨릭교회에 관한 저의 호기심은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하였고,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1966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부창동성당에서 세례 받은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대건고를 졸업하고 “성 김대건 신부님처럼 살고 싶은 소망”으로 서울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무엇이고, 사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던 철부지(?)를 좋으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로마로 유학하여 사제가 되었습니다. 더 공부하라는 주교님의 뜻에 따라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성 김대건 신부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하느님의 뜻인 주교가 되어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부창동성당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니..., 부창동성당은 저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가정이고, 집입니다.

논산은 우리 신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95년 조선에 최초로 파견된 주문모 신부님께서 박해를 피해 논산 땅에 오셨습니다. 벌곡의 이보현 프란치스코 집에서 지내시며 조선을 위한 구원의 성사를 집전 하셨습니다.

1845년 10월 12일 논산은 다시 한번 민족의 구원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제 성 김대진 신부님께서 처음으로 사목활동을 시작한 곳이 강경입니다. 우리말로 고해를 들어 주고 같은 언어로 천주를 가르쳐 줄 사제를 교우들은 갈망했습니다. 함께 입국하신 제3대 조선교구장 페레올 주교님은 당신의 소박한 '착좌식'이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술회하셨습니다. 이처럼 논산은 신앙 역사의 굴곡마다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논산의 교회는 성당이 생기기 전부터 순교자의 자취를 기초로 삼고, 그들을 본받으려는 치열한 신앙이 기둥이 되어, 허물어질 수 없는 영적인 성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921년 논산 본당의 설립은 순교의 유산을 상속하려는 경건한 의지의 소산입니다.

빛나는 신앙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부창동본당은 100년 세월의 거친 풍상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수행함에 선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썬별 유치원, 대건학교와 썬별학교를

세워 민족 계몽과 시민의식을 일깨웠고, 여성 교육에 앞장서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근대적 지성인을 양성하였습니다. 6·25의 어려운 시기에 썬별 양로원을 운영하고, 한센인들을 돕는 정착촌도 만들었습니다. 성모님을 수호자로 모신 교회답게 교구에서 처음으로 레지오마리아를 창설하였고, 성모님의 전구 아래 신심의 깊이를 더해왔습니다. 지역에서 배출된 수많은 사제-수도자가 그 하나의 증거이고 강경, 연무, 대교동내동 본당의 분리에서 보이듯이 확장된 교세가 또 다른 열매입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듯이 아름다운 '루르드 성모 동굴'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던 교우들이야말로 100년의 부창동본당을 지탱해 온 주인공들이자, 기적의 조력자였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창동본당 교우 여러분,

1921년 본당의 설립이 순교자들이 흘린 피땀의 결실이었다면, 백 년을 하루 같이 이어온 기도와 애덕은 오늘 100주년의 영광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거룩한 소명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 소명이 두렵지 않고 달가운 것은 본당이 지나온 선명한 자취가 있고, 수호자이신 성모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백 년을 수놓을 여러분의 선량한 발걸음에 강복합니다.

우리의 주보이신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유흥식 라자로 주교
현) 교구장, 본당 출신



논산 부창동성당 100주년 축하합니다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1989년 2월 23일 대흥동 주교좌성당에서 경갑 룡 요셉 주교님의 주례로 사제서품을 받고 첫 부임지로 부창동성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대전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꿈만 같았던 사제서품을 받고 떠나는 첫 부임지라 그 때 설레었던 마음, 본당 회장단 몇 분이 오셔서 함께 부창동성당으로 가던 일, 본당에 도착해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실 박상래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의 환영을 받고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신자들에게 부임 인사를 한 일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인사발령이 나던 그때도 역사가 깊은 본당이었는데 이제 설립 100주년이 된다고 하니 감사와 축하하는 마음을 본당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전합니다.

본당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열심한 청년들도 많아서 보좌신부로 사목하는 데에 어려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구나 본당신부님께서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러, 주일학교

교육에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은 항상 그대로 승인해주셨습니다. 본당신부님과 항상 곁에서 사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교사들 모두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목을 잘 도와주시던 수녀님도 매월 봉성체를 갈 때, 방문할 가정 사정을 매번 반복해서 설명해주시면서, 그 다음 달에는 또 잊어버렸나며 웃으면서 몇 번이고 친절하게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 주신 기억도 생생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추억이 아니라 보좌신부로서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본당신부님께서 수원신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던 때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미사는 거의 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 새신부로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매일 미사에 참례하는 많은 신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매일 미사를 떠올리니 빌리버 형제님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분은 앞이 안 보이는 분으로 성당 바로 앞집에 사셨습니다. 형제님

은 본당의 모든 미사에 참례하는 분이였습니다. 그러니 주일에는 3번 미사 모두 오셨습니다. 형제님은 신자석 중앙 맨 앞 좌석에 앉으셔서 항상 영성체를 맨 먼저 하셨습니다. 어느 날 형제님이 샤워를 하다가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도를 드리고 묵주기도 하면서 기억했는데, 장례미사를 드리고 나서 다음 날 교육관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영성체를 하러 나온 첫 사람이 형제님이 아닌 다른 분이셨지요.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서 성함을 놓고 뒤로 가서 잠시 울다가 나와서 다시 성체분배를 했습니다.

서품 받고 가는 첫 본당은 흔히 사제들이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돌아봐도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함께 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당의 긴 역사 속에서 부창동성당이 신자들의 기도 공간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훌륭하게 교회를 지켜온 분들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늘 기도 중에 함께 합니다.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현) 총대리주교, 본당 보좌 역임



논산 부창동 성당에서의 사목 일화

김기 바오로 신부

재임기간:1999.02.04.~2004.02.12.

Episode 1

1999년 1월 정기 인사이동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교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논산 부창동본당으로 부임하라는 말씀이었다. 공주 중동 본당으로 발령받아 온 지 일 년 밖에 안 되었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스러웠다.

중동 본당에 부임한 후 본당 교우분들 한 분 한분의 얼굴 익히며 겨우 적응하며 자리 잡은 지 일 년이 되고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을 뒤로 한 채 공주 중동 본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논산 부창동본당에 부임한 후 첫 번째 주일 미사를 드리며 어리둥절 해하는 신자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부임하시기로 되었던 신부님은 건강 문제로 못 오시고 제가 부임했다고 사정을 말씀드렸다. 당일 교구 후보 인사 명령에는 윤인식 바오로 신부님이 부창동 주임으로 오시게 되어있었다.

그날 저녁 미사를 마치고 좀 쉬려나 했는데

어느 분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오셨다. 조금 피곤해서 다른 날 오셨으면 했는데 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우리 본당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긴 시간을 인내하며 들어주었다. 이야기인즉 자신이 조폭의 조직원으로 있으면서 못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마음을 잡고 새 생활을 하여 하며 조직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조직에 빚이 있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중학생인 자신의 딸을 위해 한다고 하니 딸을 구하기 위해 빚을 꼭 갚아야 한다고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나올만한 이야기에 선뜻 믿음이 가지 않았다. 결국은 돈이야기인데 당연히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정중하게 거절하여 돌려보내려 마음을 먹었지만 오늘은 주일이므로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새 생활을 한다고 하니 빚을 갚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도 구입 하라고 적지 않은 금액을 주었다. 안 주었어도 짹짹했을 것이며 주었어도 썩 개운치 않은 일이었다.

그 후 그 일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일 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누구시냐고 물으니 일 년 전 부임한 주일 저녁때 나를 찾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람을 기억해 내며 순간 긴장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거짓말로 속여 새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자신이 어떤 잘못으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을 때 신부님께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출소 후 사죄하고 싶어 전화했다고 했다. 이제 정말 잘살아 보겠다며 더 이상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논산 부창동본당 부임을 한 후 잊히지 않는 일 중 하나다.

Episode 2

본당에 여러 신심단체가 있는데 그 중 베드로회는 남자 어르신들의 모임이다. 한 달에 한 번 주일 미사 후 율례회를 하고 일 년에 한, 두 번 야유회나 나들이를 가신다. 어느 해 보령 해수욕

장으로 나들이를 약 서른 분 정도 어르신들이 갔다. 점심 식사를 반주를 곁들여 맛있게 드시고 자유시간을 보낸 후 본당으로 돌아오던 중 성주 탄광 박물관에 잠시 들리 관람하자고 해서 탄광 박물관을 구경하고 볼일도 본 후 다시 본당으로 출발하여 부여 가까이 왔을 때였다. 갑자기 한 분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슴이 철렁했다. 출발할 때 분명히 다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다른 분들은 그냥 논산으로 가시게 하고 나만 부여에서 내려 택시로 성주 탄광 박물관으로 되짚어갔다. 그냥 박물관에 가서 주시기를 바라며 탄광 박물관에 도착해 이리저리 찾아봐도 안 계시서 걱정이 커졌다. 박물관 관계자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걱정만 한가득 안고 본당으로 돌아와서 확인하니 집에 와 계셨다. 알고 보니 성주 탄광 박물관에서 화장실에 가신 사이 버스가 떠났다고 하셨다. 당황하셨지만 차분하게 박물관 관계자에게 부탁해 대천에서 택시를 불러 타고 집으로 오셨다 했다. 양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의 과오를 성찰했다.

Episode 3

강 방지가 라는 할머니가 계셨다. 2003년 어느 날 방지가 할머니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이 살던 집을 처분했다고 하시며 신부님 필요한 곳에 쓰라며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도 없이 봉투 하나를 주셨다. 사무장님과 같이 확인해보니 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었다. 사백만 원도 큰 액수인데 사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놀라며 어찌할까 고민스러웠다.

방지가 할머니는 평소에 말수가 없으시고 조금은 대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려 혹시 나

중에 돌려 달라고 하시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 본당에 입금하지 않고 할머니 이름으로 예금을 하였다. 논산 내동 성당이 2004년 1월 8일 신설 본당으로 정해지고 부창동본당이 모 본당으로 지원해야 할 몫이 있었다. 다행히도 그때까지 방지가 할머니께서 기부하신 사천만 원을 아무 탈 없이 가지고 있었고 이자까지 생겨 조금 더 커진 돈을 사목회의 때 말씀을 드려 모두의 동의를 구하고 내동 본당에 부임하신 신부님께 넘겨 드렸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 방지가 할머니, 천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아멘. 방지가 할머니 감사합니다.



김기 바오로 신부

원로사목자, 제18대 본당 주임 겸 초대 논산지구장 역임

논산 부창동성당 100주년을 축하하며

김영교 베드로 신부

논산 부창동성당은, 내 사제생활의 첫 발걸음을 시작한 곳이다. 비록 보좌신부로서의 소임이었지만, 혼신을 기울여 일을 배우고 성장의 틀을 가꾸려 노력한 곳이기도 했다. 훌륭하고 신심 깊은 교우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큰 힘이 되어 하루하루의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었다. 교구에서 보좌를 둔 몇 안 되는 큰 본당이어서, 할 일도 많았고, 레지오마리아를 비롯한 단체가 많아 평일 저녁에도 회합 없는 날이 드물었다.

가까이에 대건 중·고교와 썬밸 여중·고교가 있어, 자연스레 학생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다. 특히 구내에 위치한 썬밸학교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여 종교(교리) 강의도 하고 운동도 함께 하곤 했다. 1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아직 까지도 기억에 남는 학생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신자분들의 인상 깊은 삶이 마음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미사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해성사 집전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언젠가 그에 관해 쓴 글을 아래에 옮기

는 것으로, 100주년을 맞는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대신하고 싶다.

수산나 할머니

회합이 없는 날에는 가끔 노인들이 계신 집을 찾는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노인들께서는 펍 반가이 맞아주셨고, 구수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게 좋아서였다. 병석에 누워계시는 분들 중엔 이따금 고해성사를 청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방을 나설 때는 아예 조그만 휴대용 영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날따라 비가 왔다. 장화를 신고 우산을 받으며 외출을 했다. 문득 수산나 할머니 생각이 났다. 오래전부터 중풍 후유증으로 자주 누워계시던 분이다.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병자답지 않게 반가이 맞아주셨다. 몇 마디의 얘기를 주고받다가 고해, 영성체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고해 준비를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기를 위하여 잠깐 옆집 할머니를 찾아보았다. 89세나 되는 할머니지만 펍 건강하시고 얘기도 재미있

게 해주시는 분이였다.

그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다시 고해성사를 위하여 수산나 할머니께 왔을 때는, 이미 미사 보까지 쓰고 고해성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신심 깊은 할머니의 고해성사에서 오히려 느끼고 배우는 것이 많았다. 그 집을 나올 때 할머니는 마루까지 나오셔서 잘 가라는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었다. 그 할머니의 손자가(당시 여충구 신학생) 찾아와, 할머니가 혼수상태로 의식불명이시라 했다.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누워계신 할머니를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믿어질 정도였다. 어제저녁 내가 그 집을 나서자마자 할머니는 이불을 펴시고, 무릎을 꿇은 채 보속과 '고해 후송' 기도까지를 다 마치셨다. 그리고는 이불 위에 쓰러지신 후 지금까지 말씀 한마디 못 하시고 의식불명인 채라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날 오후에 눈 한번 뜨지 못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슬프기에 앞서 참 신기한 생각이 일었다.

며칠 후, 그 할머니의 연미사를 봉헌하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그분께 이렇게 기도했다.

“수산나 할머니, 할머니께선 지금 분명히 천국에서 하느님을 뵙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할머니께서 평소에 열심히하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비록 본인의 성실한 준비로 천국에 드셨을지라도, 어쨌든 저라는 한 부족한 신부의 성사 집전을 통해서였던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할머니, 이젠 할머니께서 이 부족하고 어린 신부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해주셔야 할 차례입니다.”라고.



김영교 베드로 신부

원로사목자,
본당 보좌 역임

논산 부창동성당 설립 100주년을 경축하며

유호식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전교구 논산 부창동본당, 루르드의 성모 성당 설립 100주년을 마음모아 경축합니다. 부창동과 취암동 경계 언저리의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잡은 루르드의 성모님을 주보로 정한 부창동성당은 백 년 동안 논산 지역의 신자들은 물론 많은 비신자들에게도 영적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해 온 복음전파의 온상으로서 지역 천주교회의 역사를 성실하게 발전 시켜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하느님의 깊은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오늘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도구와 일꾼으로서 본당 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역대 훌륭한 목자들과 함께 성실하게 협조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논산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았고, 첫 영성체를 하고, 성세성사 재신식(再新式)(유아세례 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을 일정 기간 교리 교육을 받게 한 후 기억나지 않는 세례를 갱신하는 의식)과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아직 제 마음과 영혼

이 여리고 부드러울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예제. 47/1)과 주님의 빛(요한1/4, 8/12)으로 신앙이 뿌리를 내리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논산 부창동성당과 본당신부님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아무래도 6·25 사변이 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성당과 인접해 있었고 문 앞이 바로 신작로이기에 피난길에 오르는 그렇게 많은 인파를 어린 눈으로 처음 목격하는 가운데 신부님(프랑스인)께서도 수단을 올려 허리에 매시고 하얀 자전거를 타고 피난길에 오르시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광경이 어린 저에게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를 계기로 신부님과 성당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봅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 6·25는 저의 어린 마음에도 일진광풍(一陣狂風)이 되어 영문도 모른 채 피난 대열에 뒤따라가며 다리가 너무 아파 울면서 칭얼대던 것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 인민군 퇴각 후 수복이 되어 그해 겨울 유엔(UN)군에 의해 사제관이 불타오를 때도

어른들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차츰 질서가 잡히고 안정을 찾으면서 성당에서는 대건 유치원을 개원하여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성당은 나의 놀이터요 앞마당처럼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커다란 여러 느티나무의 그늘 아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때가 많았습니다. 과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지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당 마당에 가면 거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놀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본당 신부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이 옥내 혹은 옥외에서 놀 수 있도록 많은 놀이기구를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집무실은 우리 어린이들의 오락실이었고, 독서실이었고,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담긴 환등(幻燈)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이기도 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만화책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여러 권 비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장기인 체스와 체커(chess & checker)를 비롯하여 도미노(domino

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 다른 놀이기구도 여러 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당시 어린 나이에 서양장기까지 둘 수 있었으니 참! 아무튼 우리들은 독서와 놀이를 통해 나름대로 상상력과 꿈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환등은 주로 교리시간에 보여주셨는데 신부님께서서는 멋진 변화가 되시어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는지 교리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리 시간이 아니라도 환등을 보여 달라고 조르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주일 오후 가끔 주로 어린 보미사(복사)들과 우리보다 조금 큰 형들(사고에 대비한 듯)도 한두 명을 데리고 멀리 탑정 저수지 아래 아오리까지 가서 떡을 감게 해주셨습니다. 오가는 시간이 길어 신부님께서서는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신부님을 따라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할 때에나, 놀 때나, 눈비가 쏟아질 때

나, 항상 즐기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노래 부르자.”

간단하고 소박하다 못해 밋밋한 노랫말이지만, 궁핍했던 시절 어린이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서 인생을 기쁘고 활기차게 살도록 토대를 세워주는 노래였습니다. 또 당시에는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이어서 라틴어로만 미사를 봉헌할 때라 알아듣지 못하기에 미사 중 어린이들이 장난하고 떠드는 것을 막고 미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위해 “합송미사”란 책을 발간하여 미사 순서에 따라 노래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 때는 이 노래의 출처를 몰랐지만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 합송미사가 그레고리안 성가를 번역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일 오후에 루르드의 성모상 앞에서 부르던 노래도 성무일도의 시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다 기억 할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지만

본당 주최 연말리기 대회, 성체거동, 성탄 때에는 구유 만들기 대회를 통해 신심을 키워주면서 동시에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려고 신부님은 노력하셨습니다.

본당신부님이신 성 재덕(베드로) 신부님께서는 아이들이 아무리 떠들고 장난이 심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좌신부님들(역시 프랑스인)중에는 가끔 우리 어린이들을 때리고 혼을 내셨기에 가까이 하기 두려웠습니다. 본당신부님의 방은 사철 어린이들이 들락거렸는데 여름철이면 아이들이 땀도 많이 나고, 발도 제대로 씻지 않아 아이들이 방안에 가득하면 냄새도 많이 날 텐데 그렇다고 신부님은 우리를 밖으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또 추운 겨울 새벽미사에 보미사를 하면 얼음장 같은 주수酒水 병을 만지기 때문에 손이 곱고 시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미사 후에 당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따뜻한 난로에 불을 쪼개 해 주셨습니다. 그 때 주방에서 살며시 흘러나오는 커피와 빵 굽는 냄새가

우리들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추억과 신부님의 인품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에게 깊이 각인 되어 소년 시절은 물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은 현재와 아무 관계없는 단순히 빛바랜 과거의 한 조각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고 해주고 지금도 따뜻하게 해 주는 현재 진행형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논산 부창동성당 출신이라는 것에 얼마나 큰 감사와 더불어 긍지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 참으로 사랑 가득하신 훌륭한 신부님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성 신부님께서는 요양 차 논산 부창동성당을 떠나 잠시 본국으로 가시기 전에 저

를 신학교에 보내주신 아버지 신부님이 되셨으니 더욱 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논산 부창동성당에 대한 추억과 애정 그리고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은 다양하겠지만 그 공통의 분모는 성당을 바탕으로 성당을 중심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부창동 루르드의 성모성당을 통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과 주보이신 성모님께서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의 보살핌으로 앞으로의 100년에도 든든한 손길로 아름답게 이끌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애로운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님, 논산본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유호식 아우구스티노 신부
원로사목자, 본당 출신

아! 100주년 논산 부창동성당!

정재돈 바오로 신부

논산 부창동성당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글 한 줄을 올리려하니 가슴이 떨립니다.

나의 영혼의 고향인 논산성당!

제가 어릴 적에는 논산읍에 논산성당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영세 신부님은 불란서 노빠빠신부님
이십니다. 한 번도 뵈 적은 없습니다.

어릴 적 가장 훌륭한 聖人신부님이 성재덕
(베드로)신부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제
직에 오를 때에도 본당 어른들은 저한테 “성
신부님을 닮은 훌륭한 사제가 꼭 되어라!”하시
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자리 잡히기 시작한 본당 신
부님의 시작은 손만재(요한)신부님이십니다.

잘 생기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망토를 휘
날리시던 분. 저한테는 무서운 본당신부님이셨
습니다.

국민(초등)학교 1학년 때에 엄청 마르시고,
영화배우 같은 서봉세(질베르또) 불란서신부님이
우리 보좌신부님으로 논산성당에 오셨습니다.
제 국어책을 서신부님과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더 잘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
지 미사복사를 하였습니다. 손을 꼽아보니 7년
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의방에서 만났던 Saint
Paul 수녀님들의 사랑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
다. Saint Paul 수녀님들의 치마폭에서 살다가
신학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남요한 수녀님과
송베드로 수녀님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
다. 논산성당이 대교동성당과 분리되면서 본당의
보좌신부님이 없어졌습니다. 보좌신부님 방의
불 꺼진 사제관 창문이 지금도 서운하게 느껴집
니다. 마지막 보좌신부님이 박상옥(토마스) 신부
님이셨습니다.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셨던 김영곤(필립보)
신부님이 떠나시고, 유성숙(루도비꼬) 신부님께
서 오셨습니다. 저에겐 아버지 같은 본당신부님
이셨습니다. 밤 9시만 되면 성당 모든 불을 다
끄신 유성숙 신부님! 어린 저에게 “소신학교(예
전 서울성신고등학교)에 가서 사제가 되어라.” 하셨
습니다. 본당신부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제 소
년시절을 가슴 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유신

부님을 추억하면 가슴이 뻐뻐합니다.

그리고 대건중고등학교 교목으로 계셨던 김기룡(사도 요한) 신부님과 박재만(타대오) 신부님이 제 성소의 불씨를 지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오일복(요한)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평화의 사도」 오 요한 신부님! 그러나 참으로 엄격하셨습니다. 저의 복사단 단짝인 박민우(요셉) 친구도 함께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된 민우친구가 부럽습니다.

오요한 신부님이 저의 신학교 추천신부님이십니다. 신학생을 엄하게 관리하셨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으셨던 썩직한 신부님!

1983년 대신학교 2학년 가을에 유재식(안셀모)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멋쟁이 신부님!

유 신부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신학생 생활의 전반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니 서울대신학교의 은사이셨던 박상래(야고보) 신부님께서 본당 신부님으

로 와 계셨습니다. 우리 박 신부님의 별명은 “박살래” 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박살이 나서 부쳐진 별명이었습니다. 박 신부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우리나라 여러 산들을 다녔습니다. 박신부님과 김종수(아우구스티노·현재 보좌주교) 보좌신부님이 계실 때에 저는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1990년 부제 때에 이종대(요셉)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때에 보좌는 최석영(이나시오) 신부님이셨습니다. 이 신부님의 따뜻함이 참 좋았습니다. Focolare 일치의 정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부님들을 만나면서 제 성소가 자랐고, 이분들의 지도편달 아래 1991년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제될 무렵 10년 후배인 신인수(안드레아) 신부가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 서품 때에 최선을 다해주신 이은창 본당회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군청 앞 언덕 위의 논산 부창동성당!
성당 아랫마당 썩빨학교!

성당 뒷담 사이로 논산 부창국민학교!

꿈속에도 보이는 멋진 구 성당! (한때는 궁전
예식장)

그리고 부서진 루르드 성모 동굴!

생각해 보니 100년 동안 논산 부창동성당
에는 많은 천사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부창동성
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돈 바오로 신부
현) 공주 신관동성당 주임 겸
공주지구장, 본당 출신

